

AP, 2025. 3. 28

밈(Meme)도 마법처럼! ChatGPT '지브리화' 열풍



ChatGPT의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실험이 팬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논란을 촉발



예술가들은 AI가 창작자의 정신을 침해하고 생계를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예술과 기술의 공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ChatGPT, '지브리 스타일' 신드롬 속 저작권 논란 가열

ChatGPT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스튜디오 지브리 감성을 재현하며 일명 '지브리화(Ghiblification)' 열풍을 일으켰다. 이용자들은 반려동물이나 밤 이미지를 지브리풍으로 변환해 공유했고, 이는 SNS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OpenAI CEO Sam Altman도 자신의 SNS 프로필을 지브리풍 초상화로 교체하며 트렌드 확산에 힘을 더했다. 이번 현상은 팬 문화적 즐거움으로 소비되었지만, 동시에 AI 생성 이미지가 실제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다시 주목받게 했다.

"작가의 스타일은 금지, 스튜디오 스타일은 허용"

이 현상은 AI 학습 데이터가 예술가의 원작을 얼마나 차용했는지, 그에 따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묻는 새로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OpenAI는 자사 도구가 '살아 있는 예술가의 스타일 모방'은 허용하지 않지만, '스튜디오나 장르적 스타일'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작가 개인에 대한 보호는 강화됐지만, 특정 스튜디오의 시각적 미학은 실제 보호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 Josh Weigensberg는 스타일 자체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생성물이 지브리 원작의 실질적 요소를 모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쟁점은 AI가 어디까지 '영감'으로, 어디서부터 '복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미야자키 감독의 분노: "AI는 생명에 대한 모욕"

84세의 미야자키 감독은 오래전부터 AI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그는 2016년 AI 애니메이션 시연을 본 뒤 '생명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작품 세계에 AI를 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I 아트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인 예술가 Karla Ortiz는 OpenAI가 지브리의 명성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하며, 그는 이러한 트렌드가 예술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업적 착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AI 기술이 만들어낸 창의적 실험의 장을 열었지만,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와 예술적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월의 용어 AI 생성 콘텐츠, 가시적 워터마킹, 비가시적 워터마킹, 공정 이용

출처 : 1) AP(2025. 3. 28), ChatGPT's viral Studio Ghibli-style images highlight AI copyright concerns